

# 최근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동향

서동혁(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실장)

## 1 제조업의 2013년 10월 생산 및 11월 수출 동향

- ◎ 10월 제조업 생산: 전년동기대비 3.0%(9월 0.8%) 증가, 전월대비 2.0%(9월 1.8%) 증가하여 9월 기준보다 모두 개선
  - 9월에 이어 10월에도 자동차(10.5%), 반도체 및 부품(5.1%), 1차 금속(5.2%)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생산증가를 견인
  - 영상음향통신(-8.6%), 컴퓨터(-4.7%), 기타운송장비(-10.6), 의류(5.5%) 등은 전월 동기대비 감소
- ◎ 산업별 전월대비 기준 생산 변화
  - 전월대비 생산증가 업종: 자동차(17.2%), 영상음향통신(7.5%), 컴퓨터(13.2%), 금속가공(3.2%) 등
  - 전월대비 생산감소 업종: 반도체 및 부품(-3.55), 화학제품(-2.0%), 의류(-2.0%) 등

(제조업)	2013. 5	2013. 6	2013. 7	2013. 8	2013. 9	2013. 10
전년동기대비	-1.4	-2.5	0.9	3.2	-4.0	3.0
전월대비	-0.2	0.7	-0.2	1.6	-2.5	2.0

◎ 10월 제조업 수출 동향 : 여전히 부진한 모습

- 선박(드릴십 등 고부가가치 선박인도)·무선통신기기(프리미엄제품 시장점유율 상승)·반도체(메모리 단가상승) 등의 수출은 증가

※ 수출증가율(%) : 조선 30.5, 무선통신기기 12.6, 반도체 8.2, 석유제품 6.1, 자동차 4.7, 석유화학 2.2

- 액정디스플레이(수요감소 및 수급불균형에 따른 단가 하락), 철강(기저효과), 일반기계(중동지역 수요 위축) 등의 수출은 부진

※ 수출증가율(%) : LCD -13.4, 일반기계 -14.6, 철강 -20.3

- 13대 품목별 수출 동향(11월 실적)

◆ 증가 품목(7) : 조선(30.5%), 무선통신기기(12.6%), 반도체(8.2%), 석유제품(6.1%), 자동차(4.7%), 가전(3.8%), 석유화학(2.2%)

⇒ 9월과 비교 시, IT, 조선의 호조가 지속되고 자동차가 큰 폭 호전

◆ 감소 품목(6) : 섬유류(-1.9%), 자동차부품(-5.4%), 액정디스플레이(-13.4%), 컴퓨터(-14.6%), 일반기계(-14.6%), 철강제품(-20.3%)

⇒ 9월과 비교 시, 컴퓨터가 플러스 증가에서 크게 감소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계속 부진

- 11월의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.2% 증가하였으나, IT 수출은 1.0% 증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 호조

• 무선통신기기 : 프리미엄급 스마트폰(갤럭시노트3·갤럭시S4, G2 등)의 세계 LTE 시장점유율이 상승, 보급형 스마트폰 및 부품 수출(해외 현지생산 확대)도 호조

• 무선통신기기 : 스마트폰 수출 호조세, 기저효과로 증가율 크게 둔화

• 반도체 : SK하이닉스 우시공장 화재 등으로 메모리 가격 지속 상승세, 스마트폰용 핵심부품 수출 확대

• 가전 : 국내업체 현지 생산기지로 TV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, 냉장고 및 LED 조명 수출 확대

- 자동차, 조선 등 수송기계산업군도 수출 호조
  - 자동차: 완성차 생산의 정상화, 미국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
  - 조선: 세계 선박 발주량 증가세(수주량 전년동기대비 거의 2배 증가), 드릴십·대형컨테이너선·탱커 등 다수의 선박 인도
- 반면 철강, 자동차부품, 일반기계, 디스플레이 등은 수요 부진으로 수출 감소
  - 철강: 중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생산 확대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수출 단가 약세, 수출 비중이 높은 열연강판 및 후판의 수출 부진 및 기저효과
  - 일반기계: 중동지역의 경기침체 및 신흥국 성장둔화의 영향
  - 액정 디스플레이: TV용 패널의 수요위축 및 단가하락

## 2 사례로 본 세계 시장 경기흐름 전망

- ◎ 일본 시장에서의 수출기업 명암: 선진국 중심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
  - 북미 시장 등 선진국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
  - 마츠다(자동차)는 5년 만에 고가를 갱신(12.3 기준), 후지중공업(기계)은 상장 이래 최고가를 갱신(12.2)
    - 마츠다의 10월 국내생산 대수는 전년동기대비 30%나 증가
    - SMC는 10월 공작기계 수주가 1년 반 만에 전년동기대비 실적을 상회하며 금년 들어 초고가 기록(12.3)
  - 반면 동일 업종이더라도 신흥국에서의 수익 비중이 큰 기업의 주가는 주춤
    - 대신흥국 판매 비율이 높은 이스즈 자동차, 다이하츠공업 등은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
  - 향후로도 당분간 대선진국 비중이 큰 기업의 실적 호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
    - 신흥국의 단기전망이 불투명한데다,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신흥국 자금이 유출될 우려 지속

〈표 1〉 일본 주요 기업의 주요수출지역에 따른 주가상승률 격차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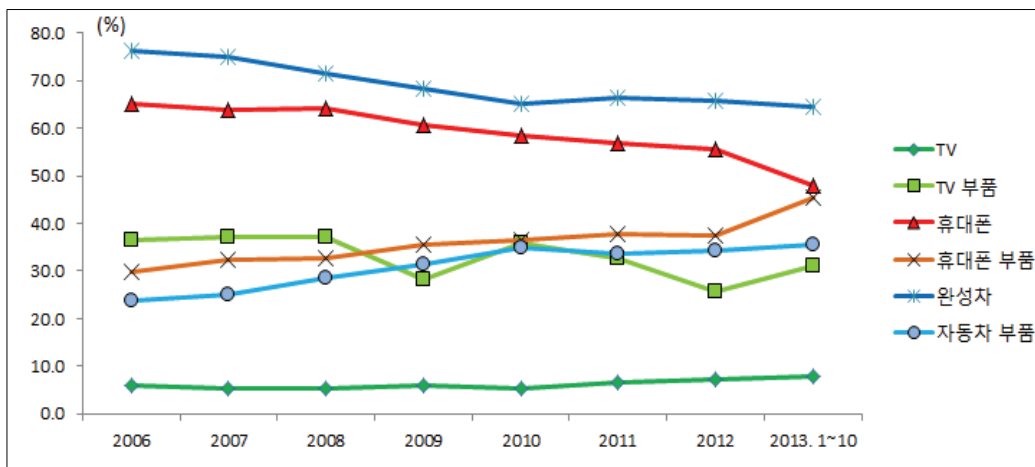
	주요 기업	주가상승률(% (11월 8일 이후))
선진국 비중이 큰 기업	마츠다	15.6
	후지중공업	11.6
	SMC	7.9
신흥국 비중이 큰 기업	이스즈	5.5
	닛산자동차	5.1
	고마쯔	0.0

자료 : 일본경제신문(2013.12.4).

- ◎ 세계 양대 자동차시장(미국·중국), 빠르게 회복 : 자동차 수출시장 여건 계속 개선
  - 미국의 2013년 자동차 판매량은 1,550만 대 전후가 되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 가까워질 전망(미국 오토데이터, 12.3)
    - 11월 판매량은 월 단위로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토요타 자동차는 12월에도 이러한 강한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
  - 중국의 자동차 판매도 사상 처음 2,000만 대 돌파가 예상(미국 오토데이터, 12.3)
    -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2013년에 전년대비 10%가 늘어난 2,100만 대로 확대되면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비해 2배 증가할 전망
  - 대EU 수출 관세 추가인하(2014년 7월) : 배기량 1500cc 이상 자동차의 2% 관세 폐지
  
- ◎ 중국의 수출, 11월에 전년동월대비 12.7% 증가
  - 2개월 연속 전년동월 수준을 상회하였으며, 두 자릿수의 성장은 7개월 만에 달성
    - 월별 수출 2,000억 달러 사상 첫 돌파
  
- ◎ 자동차, 스마트폰 등 주력 수출업종의 해외생산은 확대기조가 지속
  - 해외생산의 국내수출 대체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해당 업종의 핵심부품의 수출증가율이 완제품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수출을 유발하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

- 일부 산업(휴대폰, 자동차, 가전)의 수출 호조 배경에는 해외생산 거점의 가동률 확대가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수출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작용

[그림 1] 휴대폰, TV, 자동차의 완제품 및 부품 수출 비중 추이



- 주: 1) 무선통신기기 수출에서 휴대폰 및 휴대폰용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 
 2) 가전 수출에서 TV 및 TV용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 
 3) 자동차 수출에서 완성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

### 3 주요 산업별 동향의 특징

- ◎ 자동차: 공급차질 해소에 따른 자동차산업 회복세 전환
  - 3분기 반복되던 파업으로 공급 차질을 겪던 수출은 생산정상화로 그동안 누적된 수출 수요에 대응하면서 크게 증가하며 생산 및 출하지수 상승을 견인
  - 11월 내수판매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기저효과로 6.0% 감소
- ◎ 조선: 건조량 감소로 생산지표는 하락, 수출은 고가 해양플랜트 인도 및 기저효과로 증가
  - 건조량 감소세 지속 영향으로 생산지표 하락

- 드릴십 등 고가 해양플랜트 인도 및 전년대비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은 상승세 지속
- 일반기계 : 내수 회복세 속에 수출은 대폭 위축
  - 설비투자 회복과 함께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기계류 수주가 증가하면서 전월 (-10.3%)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생산 감소폭 완화(-0.3%)
  - 수출은 엔저 장기화에 의한 대일 수요감소와 인도네시아 경기침체, 대중동 수요 감소가 맞물려 위축
- 철강 : 생산은 성수기 진입에 따라 호조
  - 10월 철강 생산은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과 함께 수요산업 회복(건설수주 증가, 자동차생산 호조)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.1% 상승
  - 11월 철강 수출은 열연강판과 중후판의 수출부진 및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20.3% 감소
- 화학 : 생산은 강한 상승세, 수출은 다소 주춤
  - 10월 생산은 기저효과와 중국 내 대체공급수요가 맞물려 4% 증가
  - 11월 수출(금액)은 폴리올레핀 수요가 이어졌지만, 합섬원료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제가격 하락은 수출증가폭을 다소 상쇄
    - EU지역의 꾸준한 수요확대는 11월 화학 수출증가를 견인
- 가전 : LED 조명기기 수출 호조로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
  - 10월 가전 생산은 LED조명기기 및 디지털TV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.0% 증가
  - 그러나 TV 및 LED 조명기기 생산증가와 달리, 세탁기 등 생활가전은 해외생산 확대와 내수부진 지속으로 7% 감소
  - 수출은 스마트TV 및 LED 조명기기의 수요확대로 증가세 지속

- ◎ 무선통신기기 : 수출은 호조세이나, 생산은 해외생산 영향으로 감소
  - 생산은 시장 포화, 단말 보조금 규제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스마트폰 국내 수요가 위축되고, 해외생산 확대로 감소세 지속
  - 11월 수출은 국내업체의 신규 보급형 및 전략 스마트폰, 휴대폰용 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% 이상 확대
  
- ◎ 반도체 : 메모리 수요 증가 지속
  - 연말 크리스마스시즌 대비 IT제품(스마트폰, 태블릿PC, 워치폰, OLED TV, SSD 등) 생산 확대로 핵심부품인 반도체의 수요 증가
  - 하이닉스 우시공장 화재 복구의 지연에 따른 공급차질로 D램 가격 상승 추세
  - 11월 수출은 메모리 가격상승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8.2% 증가
  
- ◎ 디스플레이 : 수요부진으로 가격하락 및 수출부진 지속
  - 10월 생산은 업황 부진을 타개할 특별한 이슈가 없어 9월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현 상유지 : 세계 LCD TV 출하량은 선진국 침체,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단 등으로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.3% 감소
  - 11월 수출은 세계 수요부진과 수급불균형이 계속되며 두 자릿수의 큰 폭 감소